

선지서 해석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Ankur Lee-Vakil (Son-in-law)

제 2 강

선지자의 임무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 Millennium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선지서 해석

제 2 강 선지자의 임무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직명(Job Titles)	1
A. 일차적인 용어(Primary Term)	1
B. 이차적인 용어(Secondary Term)	2
III. 임무의 변천(Job Transitions)	4
A. 전왕정기(前王政期 Pre-Monarchy)	5
B. 왕정기(王政期 Monarchy)	5
C. 포로기(捕虜期 Exile)	6
D. 후포로기(後捕虜期 Post-Exile)	6
IV. 임무의 성격(Job Expectations)	7
A. 통속적 모델들(Popular Models)	7
1. 영매/무당(Medium/Shaman)	7
2. 점쟁이(Fortune Teller)	7
B. 언약적 모델(Covenant Model)	8
1. 과거의 이해(Past Understandings)	8
2. 현대의 이해(Contemporary Understandings)	8
V. 결론(Conclusion)	10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2 강 선지자의 임무(A Prophet's Job)

I. 서론(INTRODUCTION)

우리 문화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 만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이름을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대개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많은 점에 있어서 그것이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에 관하여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다. In my culture, when two people meet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the first thing they do is to exchange names. But very soon they usually ask this question: “What job do you do?” In many respects, that's what we're going to be asking about prophets in this lesson. We want to ask: “What kind of job did Old Testament prophets do?”

이 강의의 제목은 “선지자의 임무”이다. 선지자의 임무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살필 것이다. 첫째는 선지자들의 직명이고, 둘째는 임무의 변천 곧 예언 사역에 일어났던 변화들이고, 셋째는 선지자들의 임무의 성격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대하신 일들이다. We have entitled this lesson “A Prophet's Job.” As we explore the job of a prophet, we will look at three items: first, the job titles of prophets; second, the job transitions —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prophecy — and then finally the job expectations of prophets — what God expected his prophets to do.

그럼 먼저 구약의 선지자의 직명들을 탐구해 보자. Let's begin this lesson by exploring the job titles of Old Testament prophets.

II. 직명(JOB TITLES)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칭호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부른다. 실제로 우리는 동일한 한 사람을 많은 다른 칭호를 사용하여 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한 사람을 목사, 선수, 음악가로 부를 수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람들이 삶에서 온갖 종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동일한 종류의 일이 선지자들에게 적용된다. 선지자들을 부를 때 서로 다른 많은 칭호가 사용되었다. In everyday life we call people by many titles; in fact, we might call the very same person by many different titles. For example, we might call one man a pastor, an athlete, a musician. Why? Because people do all sorts of things in life. Well, in the Old Testament, the same kind of thing is true about Old Testament prophets. They're called by many different titles.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사용된 칭호들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범주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사용된 일차적인 용어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직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일군의 이차적인 용어들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선지자들에 대한 일차적인 용어를 살펴보자. To explore the titles that the Old Testament uses for prophets we're going to look at two basic categories. First, we'll look at the primary term used for prophet in the Bible. And second, we'll take a look at an assortment of secondary terms which the Bible uses to designate this office. Let's look first at the primary term for prophets.

A. 일차적인 용어(PRIMARY TERM)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선지자가 점쟁이나 영매처럼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역할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사실상 "선지자"란 영어 단어조차도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넘어선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When most English-speaking Christians hear the word "prophet," they tend to think that a prophet is someone who simply predicts the future, much like a fortune-teller or a psychic. It's true that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foretold the future, but their role was much broader than this. In fact, we get a clue that even the English word "prophet" has the potential of meaning more than someone who simply predicts the future.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란 용어를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역으로부터 얻었다. 우리가 자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영어 단어 [프라피트 prophet]를 유래시킨 헬라어 단어 [프로페테스 προφήτης] 는 상당한 유통성이 있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헬라어 단어 [프로페테스 προφήτης]의 두 번째 요소는 [페테스 φητης]인데 이것은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많은 말을 하고 기록한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두 번째 요소는 아주 분명하다. 그렇지만 [프로테페스 προφήτης]의 첫 번째 요소 [프로 προ]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미리 말하다(speak beforehand)” 곧 “예언하다(predict)”를 의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드러내어 말하다(speak forth)” 곧 “선포하다”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포하는 것에는 예언이 아닌 것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예언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선포자일 수도 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두 가지 일을 다 했었다. 그들은 미래에 관하여 말했지만 그들 자신의 시대에 관하여 담대하게 말하기도 했다. “선지자”라는 기본적인 명칭은 선지자들이 수행했던 다양한 일들을 가리키고 있다. προφήτης[] English speakers get their term "prophet" from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the Septuagint. We often don't realize it, but the Greek word *prophētēs* (προφήτης) from which we derive our English word "prophet" is a rather flexible term. This term combines two elements. The second element of the Greek word *prophētēs* is *phētēs* (φητης) and it denotes the concept of speaking. It suggests that prophets did a lot of talking and writing. This is plain enough, but the first element of *prophētēs*, *pro* (pro), may point in two directions. On the one hand it may mean to "speak beforehand" or "predict," and on the other hand, it may simply mean to "speak forth" or to "proclaim" something that is not even a prediction at all. A prophet then can be someone who predicts or simply someone who proclaims. In reality, Old Testament prophets did both. They spoke of the future, but they also spoke boldly about their own days. The basic title "prophet" points to the variety of jobs that these people performed.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선지자”란 용어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헬라어 [프로페테스 προφήτης]는 칠십인역에서 히브리어의 특정 단어 [나비 נָבִיא]를 번역하는데 사용되었다.¹ 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들에서 대응되는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나비]라는 용어가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² 이것은 매우 융통성

¹ [역자 주] נָבִיא[나비]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던 용어이고 헬라어 προφήτης 로 번역되었다. 영어 prophet 는 헬라어 προφήτης 에서 유래된 것이다.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이해하기 힘든, 불분명한) 신탁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신탁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용어였으므로 히브리어 나비가 (이해하기 쉬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에 강조점을 두는 것과 분명 다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Vos(*Biblical Theology*, 195)가 말한대로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대변자(mouthpiece)가 아니라 해석자(interpreter)였다.

² [역자 주] נָבִיא [나비]의 어원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는 없다.

1.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ed.,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1980), 544-545 는 [나비]의 어원에 대한 4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 1) Arabic *naba'a* ‘to announce’ : hence spokesman (Koenig)
- 2) Hebrew *nābā* ‘softened from *nāba’* ‘to bubble up’: hence one who pours forth word (Gesenius)
- 3) Akkadian *nabū* ‘to call’ : hence one who is called by God (Albright, Meek)
- 4) unknown Semitic root (BDB, Koeler and Baumgartner, E. J. Young)

2. 히브리어 어근 נָבִיא 는 원래부터 있는 어근(deverbal root)인지 명사 나비에서 파생된 어근(denominal root)인지 분명하지 않다. 히브리어 어근 נָבִיא 는 “끓어 오르다 bubble forth”란 의미의 어근 נָבַח 와 관련지어 설명된다. Gesenius 는 선지자들이 가슴에서 무언가 끓어 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에서 선지자라고 부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셋째 자음이 아인에서 알렘으로 변화된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3. 히브리어 어근 נָבִיא 는 아랍어 *naba'a* 와 관련지어 설명되기도 한다. 아랍어 나바아는 “다른 사람의 명령으로 말하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어떤 것을 선언하다 speak at the command of someone else, announce something for someone else”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선포하는 자이다.

있는 용어로서 선지자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낸다.

4. 히브리어 נָבִיא는 아카드어 *nabū* 와 관련지어 설명되기도 한다. 느부갓네살이나 나보폴라살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느보 혹은 나부라는 신은 지혜, 과학, 글의 신(god of wisdom, science, and writing)이다. 아카드어 [나부]는 “말하다, 부르다 speak, call”는 의미를 갖는다.

1) Meek(*Hebrew Origins*, 147)처럼 “말하다”는 의미를 취하고 능동으로 여기면 나비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대변자(speaker, spokesman for God)를 뜻한다.

2) Albright 처럼 “부르다”는 의미를 취하고 수동으로 여기면 나비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someone who is called by God)를 뜻한다.

5. [나비]의 어원적 설명은 학자들의 추정이므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그러므로 [나비]가 나오는 구절들(출 7:1[cf. 출 4:16]; 민 12:6-8; 신 18:9-22[cf. 렘 15:19])을 통해 [나비]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1) 출 7:1 은 모세가 바로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 모세와 바로 사이에서 대언자(나비) 아론은 모세가 그에게 하는 말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함을 보여주므로 [나비]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이다. 출 4:16 은 아론이 모세의 입([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2) 민 12:6-8 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상으로나 꿈으로 알렸으나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시며 중보자로서 모세를 대신하려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달할 메시지를 줄 때만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신 18:9-22 은 가나안 족속들이 미래에 대해 알기를 원할 때 행하던 9 가지 미신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아 전하던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실 것을 알리며 모세에게 청종하듯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선지자가 거짓을 고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참된 선지자의 말은 성취될 것이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신 18:18 에 의하면 나비는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이다. 렘 15:19 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입([페])이 될 것을 말한다.

4) 이상의 성경 구절들은 [나비]의 기본 성격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변자(spokesman, mouthpiece of God)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많은 특별한 봉사를 하도록 그들을 불러내셨다. When we look at the Hebrew Old Testament, we discover that the term "prophet" had an even broader meaning. The Greek word *prophētēs* (προφήτης) is the term used in the Septuagint to translate a particular Hebrew term, *nābî* (נָבִי). From parallels to other languages of the ancient Near East, we know that the term *nābî* means a "called person." It's a very flexible term, simply indicating that a prophet was someone who was called by God. They were not ordinary people; God called them out for many special services.

선지자를 나타내는 일차적인 용어 [나비] 이외에도 구약의 선지자 직분과 연관된 이차적인 용어들도 많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이차적인 용어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In addition to the primary designation of a prophet as a *nābî*, a number of secondary terms also come to be associated with the office of prophet in the Old Testament. We'll take a look at several of these important secondary terms.

B. 이차적인 용어(SECONDARY TERMS)

첫째로, 선지자들은 종을 의미하는 [에베드 ַעֲבָד]로 자주 명명되었다. 구약에서 다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종이라고 하였는데 이 용어는 항상 종속과 겸허를 나타낸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주 관리 혹은 직원, 특히 궁정의 직원이란 뜻을 내포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 궁정에서 공직 지위를 가진 봉신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이다. In the first place, prophets were also frequently designated by the term *'ebed* (ַעֲבָד), or servant.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were called servants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term always indicates some kind of subservience and humility. But this title is important for prophets, because it often bore the connotations of an official or an officer, especially an officer of a royal court.

Even Israel's kings are called servants of God because they were the vassal kings who held official positions in God's heavenly, royal courts.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하늘 보좌의 대리자로서 섬겼다. 그들은 크신 왕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공적인 종이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선지자들을 무시한 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라고 고백했던 이유이다. 단 9:6 에서 그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Prophets play special roles in God's royal court. They served as representatives of the heavenly throne. They were official servants who spoke in the name of the Great King. This is why Daniel confessed that it was Israel's great sin to ignore the prophets. Listen to the way he spoke in Daniel 9:6:

We have not listened to your servants the prophets, who spoke in your name (Daniel 9:6).

(단 9:6) 우리가 당신님의 이름으로 말하던 당신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궁정의 종들로서 하늘 보좌를 대표하였다. The prophets were not ordinary people. They represented the throne of heaven as servants of the royal court of God.

이 외에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들은 선지자들이 수행했던 또 다른 특별한 역할을 가리킨다. "보는 자, 선견자"란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용어 [로에 רֹאֵה]는 "보는 자, 선견자" 혹은 "관찰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용어 [호제 רֹחֵץ]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삼상 9:9 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되기 전에 선지자들은 먼저 선견자라고

했다.³ 이와 비슷하게 삼하 24:11 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나비]였던 갓이 [호제] 곧 선견자로도 알려졌음을 말해 준다.⁴

(삼상 9:9 개역개정) 지금 선지자(=[나비])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로에])라 일컬었더라.

(삼하 24:11) 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호제])인 선지자(=[나비]) 갓에게 임했다.

Beyond this, two closely related Hebrew words point to another special role which prophets played. The Hebrew term *rō'eh* (רֹאֶה) means "seer" and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term *hōzeh* (חֹזֶה) which means a "seer" or an "observer." According to 1 Samuel 9:9 prophets were first called seers before the rise of kingship in Israel. Formerly in Israel, the prophet of today used to be called a seer. In a similar way, 2 Samuel 24:11 tells us that Gad, who was a prophet of David's time, was also known as a *hōzeh*, or a seer —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Gad the prophet, David's seer (2 Samuel 24:11).

선지자에 대한 이 두 칭호들이 그들의 임무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칭호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주 가졌던 매우 중요한 체험을 가리켰다.⁵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라고 불린 것은 그들이

³ [역자 주] 사무엘은 선견자([로에] 삼상 9:18-19; 대상 9:22; 26:28; 29:29)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선지자([나비] 삼상 3:20; 19:20; 대하 35:18)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⁴ [역자 주] 왕하 17:13 에서도 [호제]가 [나비]의 동격으로 쓰이고, 암 7:12 에서는 아모스가 예언하는(티나베) 선견자(호제)라고 불리우고, 이사야 29:10 에서는 선지자(나비)와 선견자(호제)가 연결지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⁵ [역자 주] [로에]와 [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본다는 사실과 주된 관계가 있지만 메시지를 본 후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선지적 계시를 받는 양식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메시지의 전달을 강조하고 있다.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로서의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하늘을 들여다 보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역대하에서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을 설명하라는 도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미가야는 그가 받았던 하늘의 환상을 묘사했다. 대하 18:18-19 에서 선지자 미가야는 그가 하늘에서 보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What do these titles for a prophet suggest about their job? These designations pointed to a very important experience which prophets often had as they received God's word. The prophets are called seers because they were given the privilege of looking into the heavenly places. In the book of 2 Chronicles, the prophet Micaiah ben-Imla was challenged to explain his prophecy. In response, Micaiah described a vision of heaven that he had received. In 2 Chronicles 18:18-19, we read the prophet's description of what he saw in heaven:

I saw the Lord sitting on his throne with all the host of heaven standing on his right and on his left. And the Lord said, "Who will [lure] Ahab, King of Israel, into attacking...?" One suggested this, and another that (2 Chronicles 18:18-19).
(대하 18:18-19 개역개정)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라고 불려진 이유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구절이다. 그들은 하늘 영역을 들여다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에]와 [호제]는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 세 용어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Kaiser(*Back Toward the Future*, 74)는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받은 자이고 [호제]는 이상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라 정의하였다.

것을 들었다.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배울 때 이러한 종류의 하늘 체험들이 그들의 사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is a remarkable passage, showing why prophets were called seers. They looked into the heavenly realms. They heard God speak. They watched actions take place. They interacted with God in the heavenly places. And as we learn about the prophets,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se kinds of heavenly experiences were central to their ministries.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가끔 사용된 또 다른 용어는 히브리어 단어 [초페 *תִּשְׁבֵּעַ*]로서 "파수꾼" 곧 "경계를 서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은유는 선지자들을 고대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보초와 비교한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도시들은 기대되거나 예기치 않은 방문객들에 대하여 지평선을 자세히 살피는 보초들을 두었다. 선지자들은 적들을 감시하고 복과 저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감시함으로써 파수꾼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겔 3:17 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Another term occasionally used for prophets is the Hebrew word *tsōpheh* (תִּשְׁבֵּעַ), or a "watchman," "one who keeps guard." This metaphor compared prophets with the service of a normal watchman in ancient Israel. Cities in the ancient world had watchmen who scanned the horizon for expected and unexpected visitors. Prophets did the same by watching out for enemies and watching for the approach of God in blessing and in judgment. For example, in Ezekiel 3:17, God spoke to the prophet Ezekiel in this way:

Son of man, I have made you a watchman for the house of Israel; so hear the word I speak and give them warning from me (Ezekiel 3:17).

(겔 3:17 개역개정)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성경 시대에 적들의 접근이나 친구의 방문에 대한 사전의 통고는 도시의 업무에 중요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의 선지자들이 자주 임박한 심판과 다가오는 복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 무엇이 오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본 후에 백성을 향하여 무엇이 지평선에 있는지 선언했다. In biblical times, advanced warning of an enemy's approach or a friend's visit was important to the affairs of a city. God revealed that his prophets often watched for impending doom and approaching blessings so that the people could have opportunity to prepare themselves. Prophets looked out and saw what was coming in dreams and in visions, and then they turned to the people and announced what was on the horizon.

가끔 선지자들은 “사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말아크 אִצְטָר]라고 명명되었다. 구약의 고대 세계에는 전화나 이메일이나 텔레비전이 없었다. 장거리 통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간 전령들이었고 전령들은 자주 왕이나 대장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달 내용을 받고 그 메시지를 수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곤 했다. 알려야 할 것이 급한 것이면 매우 빈번하게 전령들이 보내졌다. 구약이 선지자들을 “사자”라는 용어로 지칭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그 긴급한 전달 사항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매우 낙담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학개를 부르시어 메시지를 주시며 그들에게 보내셨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 1:13 은 선지자 학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⁶ Prophets were also

⁶ [역자 주] 선지자의 임무의 본질 곧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말아흐] “사자/사신/사절”가 단수형으로는 학 1:13(“여호와의 사자 학개”)에만 나오고 복수형으로는 사 44:26(“그의 사자들”)과 대하 36:15(“그의 사신들”과 대하 36:16(하나님의 사신들”)에 나온다. 개역개정에서 이사야서의 경우 “사자들”로 번역하고 역대하의 경우 “사신들”로 번역한 것은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유 명사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다.

- [사 44:26 개역개정] 그의 종(אֲנִי)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אִצְטָר)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occasionally designated by the Hebrew word *mal'āk* (מַלְאָךְ) which means "messenger." In the ancient world of the Old Testament there were no telephones, no e-mail, no televisions. The only way to communicate over long distances was through human messengers, and messengers received a communiqué from one person, often a king or a military general, and would bear that message to its recipients. Very often messengers were used when it was urgent to communicate. The Old Testament designates prophets by this term because they received messages from God and bore those urgent communications to the people of God. For instance, when some Judahites returned to Jerusalem from the Babylonian exile, they were tremendously discouraged. So, the Lord called Haggai, the prophet, and sent him with a message. For this reason, Haggai 1:13 speaks of the prophet in this way:

Then Haggai, the Lord's messenger, gave this message of the Lord to the people: "I am with you," declares the Lord (Haggai 1:13).

(학 1:13) 그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사자"라는 칭호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의 사신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했다. The designation of "messenger" makes it clear that prophets did not bring their own ideas to the people of God. On the contrary, they served as Yahweh's envoys and spoke on the behalf of God.

-
- [대하 36:15-16 개역개정] 15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מַלְאָכָיו)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מַלְאָכָיו)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נְבִיאָיו) 복수! "그의 선지자들")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가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의 [이시 엘로힘 אִישׁ אֱלֹהִים]으로 불리운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⁷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 칭호는 선지자들이 가졌던 특별하고 거룩한 역할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보내졌다. 그런 자들로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고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왕하 1:12 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 용어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Finally, we should mention that prophets were sometimes called *’ish ’ēlohim*, (אִישׁ אֱלֹהִים) a “man of God.” The designation “man of God” may also be translated “man from God.” This title pointed to the special sacred role which prophets had. They were selected and sent by God. As such, prophets had special protection from God, and they had special authorization. In 2 Kings 1:12 the prophet Elijah revealed the significance of this term. There we read:

“If I am a man of God ... may fire co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 you and your fifty men!” Then the fire of God fell from heaven and consumed him and his fifty men (2 Kings 1:12).

(왕하 1:12 개역개정)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를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⁷ [역자 주]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구약에 76 번 사용되었다.

- 엘리사에게 가장 많이(26 번) 사용되었다(왕하 4:7, 16, 21, 22, 25, 27, 40, 42; 5:8, 14, 15, 20; 6:6, 9, 10, 15; 7:2, 17, 18, 19; 8:2, 4, 7, 8, 11; 13:19).
- 여로보암의 벤엘 제단의 무효화를 선언했던 이름 모를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비롯하여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된 선지자들이 있다.
- 나머지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스마야, 하난 등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엘리야가 부여받은 신적인 권위는 그 선지자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살라버린 기적적인 불의 내림을 통해 밝히 드러났다. 엘리야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다. Elijah's divine authorization is demonstrated by a miraculous display of fire against those who opposed the prophet. Elijah was no ordinary man. He was sent from God. God was on his side.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이 많은 명칭과 칭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검토는 구약에 사용된 이런 다양한 칭호들 중의 몇몇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존재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단지 영매나 점쟁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다양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양한 칭호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잘 이해하기 원한다면 선지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 So we have seen that Old Testament prophets had many designations and titles. Our survey has only touched on a handful of these various titles that are used in the Old Testament. But we can see one thing clearly — prophets were much more than what most people think. They were not mere psychics or fortune-tellers. They had a variety of titles because they had a variety of services. And if we want to understand Old Testament prophecy, we have to broaden our idea of what a prophet is.

III. 임무의 변천(JOB TRANSITIONS)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녔던 다양한 직명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주제 곧 선지자의 임무에 있어서 어떤 변천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나는 살면서 많은 직업을 가져 보았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적용되는 한 가지 일이 있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그것들이 모두 변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잠시 일한 후에 알게 되는 사실은 그 직업이 전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일어났다. 그들은 할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가 진전되면서 그들의 일은 변천을 겪었다. So far

we've looked at a variety of job titles that Old Testament prophets bore. Now we should turn to our second topic: what transitions took place in the prophet's job? I've had lots of jobs in my life, and there has been one thing that's been true about every single one of them — they've all changed. I've worked for a while and the next thing I know, the job is different than it was before. Well, something similar is true of Old Testament prophets. They had a job to do, but as the history of the Bible developed, their jobs went through transitions.

구약 선지자들의 직업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선지자들의 사역을 네 가지 역사적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첫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에 왕들이 없었던 전왕정기(前王政期)이고, 두 번째 시기는 왕정기(王政期)이고, 세 번째 시기는 고국에서 추방된 시기 곧 포로기(捕虜期)이고, 네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이 유배로부터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온 후포로기(後捕虜期)이다. To understand how the job of Old Testament prophets went through transitions, it helps to think of prophecy in four historical stages: the pre-monarchical period — the time before kings arose in Israel; the monarchical period; the exilic period — the time of exile from the land; and the post-exilic period — when Israel returned from exile.

A. 전왕정기(前王政期 PRE-MONARCHY)

그럼 먼저 전왕정기의 선지자들을 살펴보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의 시대들을 탐구할 때 예언 사역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첫째로, 이 시기 동안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 [나비]라는 용어는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다. 이 책들에서 20 번 미만의 언급이 있을 뿐이고, 그것들 중 일부는 미래에 올 선지자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왕들이 있기 전의 이른 시대들에는 매우 적은 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 Let's look first at prophets during the pre-monarchical period. When we explore the times before there was a king in Israel, it's easy to see several features of prophecy. First, there were relatively

few prophets during this time. The term *nābî* does not appear very often in the books of Genesis to Judges. There are less than twenty references in these books, and some of them concern future prophets to come. So there were very few prophets during the early times before there was a king.

전왕정기 동안 선지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비교적 비공식적인 역할들을 담당했다. 그들의 일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것으로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때를 위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전왕정기에서 [나비]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많은 일들을 하던 매우 다양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Beyond this, during the pre-monarchical period, prophets exhibited a wide variety of relatively informal services. Much of their work seems to have been temporary, designed for particular situations and particular times. The term *nābî* is used in the pre-monarchical period to signify a wide variety of people doing many different things.

B. 왕정기(王政期 MONARCHY)

이스라엘에 왕들이 있기 전인 성경 역사의 이른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구약의 예언 사역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만나게 된다. 왕정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선지자들의 역할의 변화들도 포함되었다. 전왕정기와 대조적으로 이 시기 동안 아주 많은 수의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와 같은 책들에서 여러 선지자들에 대하여 자주 읽는다. 사실상 성경의 모든 시대 중 이 왕정 시대 동안 선지자들이 가장 많았다. Leaving behind the early period of biblical history before there were kings in Israel, we come upon a dramatic shift in Old Testament prophecy. The monarchical period brought many changes to the nation of Israel, including changes in the role of prophets. In contrast to the pre-monarchical period, prophets appear in large numbers during this time. Time and again we read of this prophet and that prophet in books like Samuel and Kings and Chronicles. In fact, there are more prophets in the Bible during this period of time than any other.

왕정 시대 동안 선지자들의 수가 증가된 것과 더불어, 예언 사역 또한 훨씬 더 공식적인 것이 되었다. 왕정의 도입과 함께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왕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왕들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갖기를 원하셨을지라도 타락한 인간 왕들이 나라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것도 알고 계셨다. 인간들은 많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 보통 그들은 타락하고 그들의 권위 아래 있는 것들을 남용한다.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phets during the monarchical times, prophecy also became much more formal. With the rise of kingship, God gave prophets the job of focusing on the actions of kings and making sure that they were obedient to the Law of Moses. Although God wanted Israel to have a human king, he also knew that fallen human kings would present a serious danger to the nation. Human beings simply do not know how to handle lots of power. They usually become corrupt and abuse those who are under their authority.

이스라엘의 경우에 왕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행위는 자주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모세는 왕들의 권력에 대한 많은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신 17:14-20 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많은 제한 사항을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왕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왕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많은 아내들이란 많은 이방인 아내들을 의미했을 것이다. 왕은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왕은 자신을 위해 모세의 율법책의 등사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왕은 평생동안 그 율법책을 읽어야 한다. 왕은 모세의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왕은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In the case of Israel's history, when kings became corrupt, it was very dangerous because their actions often brought judgment from God on the whole nation. For this reason, Moses laid down a number of restrictions on the power of kings. In Deuteronomy 17:14-20

Moses sets forth a number of restrictions on the kings of Israel: Israel must only have a king whom the Lord chooses. The king must be from among your brothers — in other words, an Israelite. The king must not acquire great numbers of horses. He must not return to Egypt. The king must not take many wives — and by this Moses probably meant many foreign wives. He must not accumulate large amounts of silver and gold. The king must write for himself a copy of the Law of Moses. And the king must read the law all the days of his life. He must follow carefully all the words of the Law of Moses. And he must not consider himself better than his brothers.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읽자마자 왕들이 모세가 규정한 제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왕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의 불순종을 지적하도록 하셨다. 선지자들은 왕들의 권력을 견제할 공적인 직분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과 왕들의 이러한 밀접한 연관을 볼 수 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 앞에 섰다. 오벧은 아하스의 정책에 반대하며 예언했다(역자주: 대하 29 장). 엘리야는 아합을 질책했다. Of course, as soon as we read the history of the kings of Israel, we discover that they did not observe the restrictions that Moses laid upon them. And so God sent prophets to witness against the disobedience of kings and the people who followed them. The prophets held a formal office to check the power of kings. We can see this close association of prophets and kings on many pages of the Bible. Nathan the prophet stood before David. Oded prophesied to Ahaz. Elijah critiqued Ahab.

말할 나위도 없이, 모든 선지자가 실제로 궁정에서 공적으로 사역한 것은 아니다. 많은 참 선지자들이 그들 당대의 왕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러나 궁정 안에 있던지 아니면 도시의 거리에 있던지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은 왕들과 다른 관리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기에 선지자들은 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 Now, needless to say, not every prophet actually served officially in the royal court. Many true prophets were rejected

by kings of their day. But whether in the courts themselves or in the streets of the cities, prophets of the monarchical period held kings and other officials accountable to God's law. They served God at this time by pointing out when kings and officials violated the law of God.

이렇게 우리는 왕정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왕들의 궁정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더 많은 공식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을 살펴보았다. So it is that during the monarchical period, we see a rise of many prophets, and we also see a more formal function for prophets as they served the Lord in the courts of kings.

C. 포로기(捕虜期 EXILE)

전왕정기부터 왕정기까지 예언 사역에 있었던 몇몇 진전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포로기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포로 시대 동안 예언 사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주전 722 년에 북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앓수르인들에게 함락되었다. 그리고 주전 586 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인들에게 함락되었다. 많은 수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다른 나라로 추방당했다. 이 시기 동안 선지자들의 사역은 두 가지 특징을 가졌다. 첫째로, 선지자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들의 예언 사역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두드러진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시대에 사역한 소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Now that we've seen some of the developments in prophecy from the pre-monarchical to the monarchical period, we should turn our attention to the period of the exile. What happened to prophecy during the exile? Well, in 722 BC, northern Israel's capital of Samaria fell to the Assyrians. And in 586 BC Jerusalem fell to the Babylonians. Vast numbers of God's people were taken from their land and exiled to other nations. During this time, two features characterized the prophets' ministries. First, there was a numerical decrease of prophets. There were not many prophets who were prominent

enough to have their prophecies recorded in the Bible. Daniel and Ezekiel, for example, are the best known of the very few prophets during this time.

둘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선지자들의 사역은 다시 훨씬 더 다양하고 비공식적이었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 유수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정이 종말을 고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국외 추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본토 귀환의 가능성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포로 시대 동안 선지자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관련된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Of course, along with the exile was the demise of Israel's kingship, and for this reason prophets' service to God became much more diverse and informal again. For the most part, true prophets of God spent their time explaining the exile and instructing God's people about the possibility of return to the land. So we can see that during the exile there were fewer prophets, and they concerned themselves much less with the kings of Israel.

D. 후포로기(後捕虜期 POST-EXILE)

포로기가 지나고 우리는 후포로기에 선지자들의 활동을 목격했던 몇몇 세대들에 이르게 된다. 후포로기의 초기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다시 제도화된 왕정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로 예언 사역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선지자들의 수는 여전히 비교적 적었지만 그 선지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활동이 있었다.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선지자들이다. After the period of exile, we come to those few generations who saw prophetic activity in the post-exilic period. The early post-exilic leader, Zerubbabel, began to revive the nation. The potential for a re-instituted monarchy arose. As a result, two things happened to prophecy. The numbers of prophets remained relatively few, but there was some very important activity that took place among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and Malachi are the important prophets that we know from this period.

선지자들은 다시 보다 더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 되었고 다가울 왕에 대한 소망들이 그에게 모아졌다. 그 결과로 학개와 스가라는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했다. 말라기는 관리들과 회복 공동체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꾸짖었다. 전체 후포로기 동안 선지자들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 감시했다. Prophets began to move slightly back toward a more formal role again. Zerubbabel became the governor of Judah, and hopes were put in him as the upcoming monarch. As a result, Haggai and Zechariah encouraged the officials of Israel to rebuild the temple. Malachi rebuked the officials and the people of the restored community for continuing to rebel against God. During the entire post-exilic period the prophets kept watch on the leaders and the general population as well to encourage them to be faithful to God.

이렇게 예언 사역은 왕정 제도의 흥망성쇠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었고, 공식적이 되거나 비공식적이 되었다. 우리가 특정 선지자들의 말을 탐구할 때 우리가 전왕정기, 왕정기, 포로기, 후포로기 중 어느 시기에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지자들의 임무에 있었던 이러한 변천들은 그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⁸ So it was

⁸ [역자 주] 힐과 윌튼(Old Testament Today, 233)은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하여 선지자들의 임무의 변천을 제시했다.

시기	기능	청중	메시지	예
전왕정기 Pre-monarchy	대변자-인도자 Mouthpiece-leader	백성 people	백성 인도; 공의 유지; 영적 감찰	모세, 드보라
				전환기: 사무엘
전고전기 Pre-classical	대변자-충고자 Mouthpiece-adviser	왕과 궁정 King and court	군사적 충고; 꾸중 혹은 복의 선언	나단,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전환기: 북-요나남-이사야

that prophecy became more or less prominent and more or less formal as the institution of monarchy rose and fell. As we explore the words of particular prophets, we must always be mindful of whether we are in the pre-monarchical, the monarchical, exilic, or post-exilic periods. These transitions in the prophets' job will help provide us with an orientation toward understanding their words.

IV. 임무의 성격(JOB EXPECTATIONS)

지금까지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명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언 사역이 변천된 방식들을 살펴보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임무의 성격을 다룰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길 기대하셨는가?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고찰할 것이다. 첫째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선지자들에게 적용하는 임무의 성격에 대한 통속적 모델들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성경 자체가 선지자의 임무의 성격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언약적 모델을 살필 것이다. So far, we have seen the various titles given to prophets, and the ways prophecy developed in the history of Israel. At this point, we'll take a look at the expectations of a prophet's job. What did God expect prophets to do? To explore this topic we'll take a look at two subjects: first, popular models of expectations which many interpreters of the Bible apply to prophets, and second, the covenant model which the Bible itself gives as the standard of a prophet's job expectation.

고전기 Classical	대변자- 사회적/영적 해석자 Mouthpiece- social/spiritual commentator	백성 people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한 구중; 포로, 파멸, 국외 추방의 선언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 공의 요구와 회개 추구	기록 선지자들 최고의 예: 예레미야
------------------	---	--------------	--	---------------------------

A. 통속적 모델들(POPULAR MODELS)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하기를 기대하신 일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 온 몇 가지 선별된 모델들을 살펴보자. 해석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막론하고 다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지자들의 역할을 이해해 왔다. 이러한 모델들의 일부는 참된 측면들을 다룬 것도 있지만 그 모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을 제공하지 못한다. Let's look first at some assorted models that have been used to describe what God expected his prophets to do. Throughout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Jews and Christians alike have understood the roles of prophets in different ways. Some of these models touch on aspects of the truth, but they still fall short of providing a comprehensive model for what God wanted his prophets to be.

1. 영매/무당(Medium/Shaman)

많은 해석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른 문화들에서 볼 수 있는 영매(靈媒)들과 비교했다. 델피의 신탁이나 다른 고대 근동 문화들의 영매들과 매우 흡사하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인 질문들과 기도들에 대한 그분의 응답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다. 나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때때로 이런 종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이지만 이 관점은 선지자들이 수행하도록 기대되었던 일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로는 적절하지 않다. Many interpreters have compared Old Testament prophets with mediums of other cultures. Much like the Oracle of Delphi or mediums of other Ancient Near Eastern cultures, prophets have been seen as men who gain access to God and deliver his responses to personal questions and prayers. Now, I think we have to admit that prophets did play this kind of role in the Bible from time to time, but as we will see this outlook is not adequate for a comprehensive model of what prophets were expected to do.

2. 점쟁이(Fortune Teller)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했던 일에 대한 또 하나의 통속적인 개념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의 예언자들 곧 점쟁이들이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싶을 때 선지자들에게 가서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자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했기 때문에 이 관점에도 일말의 진리는 들어 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통찰 사항들을 주셨고 선지자들은 이 통찰 사항들을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나 우리는 점치는 것을 구약 예언 사역의 핵심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기대되었다. Another popular idea of what prophets did in the Old Testament is that they were fundamentally predictors of the future, or fortune-tellers. When someone wanted to know what would happen next, they would go to a prophet to find out. Again, there's some truth in this outlook because prophets did often predict what wa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God gave them insights and they proclaimed these insights to the appropriate people. Yet we must be careful not to think of fortune-telling as the heart of Old Testament prophecy. Something much larger and more significant was expected of Old Testament prophets.

B. 언약적 모델(COVENANT MODEL)

예언 사역에 대한 이러한 통속적 모델들은 어떤 점들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가지셨던 가장 기본적인 기대를 흐려놓기도 한다. 구약이 예언 사역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포괄적인 모델은 언약적 모델이다. 예언 사역에 대한 언약적 모델을 검토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언약을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언약이란 성경적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러 해에 걸쳐서 향상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에 대한 과거의 이해들을 고찰하고 그 다음으로 보다 더 현대적인 이해들을 고찰해야 한다. These popular models for prophecy can

help us in some ways, but they also obscure the most fundamental expectation God had for his prophets. The most comprehensive model which the Old Testament uses to describe prophecy is a covenant model. As we begin to explore the covenant model for prophecy, we must remember that for centuries Jews and Christians have recognized that covenant is a central concept in the Bible. But our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idea of covenant has improved through the years. So, we must begin by thinking about past understandings of covenant and then more contemporary understandings.

1. 과거의 이해(Past Understandings)

언약에 대한 과거의 이해들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성경의 언약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다. 최근까지 우리는 구약의 언약들에 대한 고대 근동의 맥락에 관하여 많이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언약에 대한 그들 자신의 개념들을 성경에 집어넣어 읽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개 그들은 로마의 법이나 현대의 법적인 협정에 비추어 구약의 언약들을 이해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들은 것처럼 언약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고 할 때, 이런 진술이나 비슷한 다른 진술들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막연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Past understandings of covenant have functioned well, but with very little idea of the historical context out of which the Bible's concept of covenant grew. We have not known much about the Ancient Near Eastern contexts of Old Testament covenants until recently. So, theologians have had little choice other than to read their own ideas of covenant into the Bible. Usually, they read Old Testament covenants in terms of Roman law or contemporary legal arrangements. For instance, when we hear that a covenant is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ersons, as is often said, this formulation, or other similar formulations, are not entirely wrong, but is a bit too vague to help us much.

2. 현대의 이해(Contemporary Understandings)

과거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언약을 이해한 것은 그들로서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약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이해는 이러한 과거의 진술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들로 인하여 구약의 언약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비약적인 진전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진전들로 인해 우리는 언약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임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고대 근동의 발견물들은 구약이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고대 세계에 존재했던 정치적 조약들과 아주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오늘날 중동으로 불리는 고대 세계 전반에 걸쳐서 국제 조약들은 자주 한 나라와 다른 한 나라 사이에 맺어졌다. 이런 조약들이 맺어진 방식에 다양성도 있지만 일관성도 있었으므로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조약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와는 많은 면에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조약들과 유사한 언약들을 이스라엘과 맺으셨다. In the past, theologians understood covenant in this general way because they could do no better. But our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covenant is much fuller than these past formulations. In recent decades many important archaeological discoveries have helped us make breakthroughs in our understanding of covenants in the Old Testament. These breakthroughs put us in a better position to understand how covenant established the job expectations of Old Testament prophets. Ancient Near Eastern discover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Old Testament often describes God's relationship with Israel in ways that were very similar to the political treaties that existed in the ancient world. Throughout the ancient world of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treaties often existed between one nation and another. Although there was a variety in the way these treaties were formed, there was also consistency so that people throughout the region understood how these treaties worked. For this reason, the Lord related to Israel in covenants that paralleled these Ancient Near Eastern treaties in many ways.

성경 시대에 조약들은 자주 동등한 상태의 나라들 사이에 맺어졌는데 우리는 이런 조약들을 평등 조약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애굽 제국과 앗수르 제국 사이의 조약은 역사의 어떤 시기에 동등한 나라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빈번하게 고대 세계의 조약들은 강대국 황제와 도시나 약소국의 왕 사이에 맺어진 협정들이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의 왕들은 여러 차례 강대국 애굽 제국과 조약을 맺었다. 이런 종류의 조약들은 종주-봉신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종주"란 용어는 "차르" 곧 "황제"를 뜻하고 봉신이란 강대국 황제의 종을 뜻한다. 종주 곧 강대국 황제는 조약 관계의 규칙을 정하고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봉신 곧 약소국 왕은 조공을 바치고 강대국의 전쟁에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종주에게 충성을 보였다. In biblical times, treaties were often established between nations of equal status, and we call these treaties parity treaties. For example, a treaty between the Egyptian and Assyrian empires might have been between equals at certain periods in history. But more often, treaties in the ancient world were agreements between a great emperor and a lesser king of a city or a small nation. For instance, several times kings of Canaanite city-states made treaties with the great Egyptian empire. These kinds of treaties are known as suzerain-vassal treaties. The term "suzerain" simply means the "czar" or the "emperor," and the vassal means, of course, the servants of that great emperor. The suzerains, or great emperors, established the rules of the relationship and provided protection and care. In return, the vassals or servant states showed loyalty to the suzerain by paying taxes and by supporting his war efforts.

이러한 종주-봉신 조약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황제들이 대리자들 곧 사절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역할이다. 종주들은 자주 사절들 곧 대사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봉신국들에게 그들의 조약의 조건들을 상기시켰다. 이 사절들은 조약의 검찰관처럼 행동하곤 했다. 그들은 봉신국들이 조약의 조건을 이행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주 성공하지 못했다. 황제들은 봉신국들에 대하여 매우 참을성 있게 대해 왔지만 결국 어떤 봉신국이 사절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면 강대국 황제는 그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약소국을

멸망시키곤 했다. One important feature of these suzerain-vassal treaties was the special role which the emperors gave to representatives, or emissaries. Suzerains often sent emissaries, or ambassadors, who reminded the vassal nations of the terms of their treaties. These emissaries would act as covenant treaty prosecutors. They tried to get the vassal states to comply with the terms of their arrangements, but often they would not. Now, emperors were very patient with their servant nations, but in the end, if a vassal nation refused to listen to the words of an emissary, the great emperor would come with his military forces to defeat those smaller nations.

고대 근동에서 사절들의 역할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절들 곧 하나님의 언약의 검찰관들로서 일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의 봉사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때때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킨 것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언약 위반이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찬 형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he function of emissaries in the Ancient Near East provided a model for Old Testament prophets. Prophets served as God's covenant emissaries, or his covenant prosecutors. They received their messages from the throne room of the Divine Emperor, and the Divine Emperor spoke to his vassal nation through them. Prophets occasionally commended Israel for complying with their covenant, but they primarily warned that continuing violations would bring the attack of a wrathful of God.

구약의 예언 사역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절들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봉사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크신 종주님이신 하나님을 대리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언약적 모델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행했던 임무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t would be difficult to overemphasize this insight into Old Testament prophecy. The prophets were God's emissaries. They represented him as the great suzerain to his vassal

nation, Israel. It's only as we remember this basic covenant model that we'll ever be able to understand the job that prophets did for God.

이사야 6 장을 통해 잘 알려진 이야기는 이 사절적 모델의 중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예시하고 있다. 이사야 6 장에 언약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언약의 검찰관 곧 크신 임금을 대리하는 사절이란 개념은 이사야 6 장의 전반적인 묘사를 이끌어 간다. 처음 다섯 절에서 이사야는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을 통해 이사야는 천상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사 6:1 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The well-known story of Isaiah 6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this emissarial model very clearly. Though covenant is not mentioned explicitly in this chapter, the idea that prophets are covenant prosecutors — emissaries on the behalf of the great King — guides the whole presentation of Isaiah 6. In the first five verses, Isaiah received a vision. In this vision, he observed God in his heavenly throne room. In Isaiah 6:1, the prophet reported that he saw God

... seated on a throne, high and exalted,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Isaiah 6:1).

(사 6:1 개역개정)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상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 이사야는 6:5 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When confronted by the sight, Isaiah exclaimed, in verse 5: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Isaiah 6:5).

(사 6:5)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이 구절은 선지자가 그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왕 곧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으로서 높으시고 고귀하신 종주 곧 황제이셨다. 선지자는 이 종주이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특권을 가졌다. This passage makes explicit how the prophet understood his God. God was the king of his people, the suzerain or the emperor who was high and exalted as Lord over all. The prophet had the privilege of entering into the presence of this divine suzerain.

그렇지라도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도록 초대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는 즉시 그 이유를 알아차렸다. 이사야는 그의 종주님의 보좌를 보고서 사 6:5 에서 이렇게 말했다. Even so, we have to ask why Isaiah was invited to see the glorious sight of God's throne room. He recognized why immediately. Isaiah looked at the throne of his suzerain and said this in 6:5:

Woe to me! ... I am ruined! I am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Isaiah 6:5).

(사 6:5 개역개정)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이사야가 종주이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심각하고 널리 퍼져 있는 죄가 봉신국에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은 정상적인 이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주님께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이탈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시어 언약에 근거하여 백성을 기소하도록 하셨다. Isaiah had been summoned to the presence of the divine suzerain because serious, widespread sin had taken place in the vassal nation. This is the normal reason why prophets are called in the Old Testament. The people of God wander from being faithful to their covenant Lord, and so God calls on his prophets to prosecute the covenant.

사 6:6-7 에서 한 스랍이 이사야에게 다가와서 핀 숯으로 그의 입을 정결하게 했다. 이 정결하게 함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사 6:8-13 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는 언약에 근거하여 백성을 고소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 6:8 에서 여호와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In 6:6-7 a seraph approaches Isaiah and cleanses his lips with a burning coal. This cleansing makes it possible for Isaiah to serve God as his spokesman. Then in verses 8 through 13 Isaiah receives a commission to prosecute the covenant. In Isaiah 6:8 the Lord says:

Whom shall I send? ... who will go for us? (Isaiah 6:8).

(사 6:8 개역개정)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호와와는 누군가 그분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절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말로 대답하였다. The Lord wants someone to be his emissary to Israel, and Isaiah replies in those well-known words:

Here am I. Send me! (Isaiah 6:8).

(사 6:8 개역개정)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크신 종주로부터 봉신국 이스라엘로 파송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이사야서의 나머지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예시하고 있다. 그는 왕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말했다. 그는 언약의 위반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복들에 대한 소망을 제시했다. 여기 이사야 6 장에 예시된 패턴은 구약의 선지서들의 도처에 나온다. 선지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크신 종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절들이었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그분의 봉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다. Isaiah accepts his call as one who is sent from the great Suzerain to the vassal nation of Israel. The rest of the book of Isaiah illustrates how the prophet served in this function. He spoke to kings and other leaders and to the people. He condemned covenant violations and

offered the hope of covenant blessings to the people of God. The pattern illustrated here in Isaiah 6 appears everywhere in Old Testament prophecy. Prophets were emissaries who bore messages from the great Suzerain on his heavenly throne, and they took those messages to his vassal nation, Israel.

V.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임무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체험을 탐구했다.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많은 직명들의 일부를 검토했고, 선지자의 직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진전되고 변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지자의 임무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기대들 곧 선지자의 임무의 성격을 연구했다. In this lesson we have explored the prophets' experience by looking at their job. We've seen some of the many job titles that they've received, and we've also explored how the office of prophet developed and changed through Israel's history. Finally, we've looked into the basic expectations that governed the job of a prophet.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많은 혼동이 있지만, 우리가 선지자들의 직명들과 선지자들의 임무의 변천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셨던 기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많은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오늘의 우리의 세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s a lot of confusion out there about Old Testament prophets, and we can avoid a lot of that confusion if we will just remember their job titles, the transitions they went through, and the expectation that God had of prophets that they would represent his covenants. If we remember these things about prophets, we'll be able to apply their word to our world today.